

# 갈등에서 범죄로...누적된 감정, 언젠간 터진다

‘극혐’. 요즘 온라인과 실생활에서 난무하는 말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극도로 혐오한다’를 줄인 단어로 무언가가 정말 싫을 때 활용하는 신조어라는 걸 설명하는 일 자체가 새삼스럽다. 그만큼 흔히 쓴다. ‘충’(蟲)이라는 새로운 접미어도 마찬가지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단번에 깎아내리려면 ‘지방충’이라고 부르면 그만이다. 충은 실제 벌레처럼 어디에나 들러붙을 수 있다. 혐오는 쉽고 간편하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편하게 느꼈던 이 말들이 부지불식 간에 어떤 문제의식도 불려일으키지 못한다는 것, 그게 바로 혐오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혐오 표현은 도처에 자욱하게 깔렸다. 세대·인종·계층·지역 간 반목이 없었던 시대가 언제는 있었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갈라쳐 상대를 찍어누르고 증오하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마저도 걸림돌로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욕망을 전제한다. 혐오가 세를 불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또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알고 있다.

해충처럼 창궐해만 가는 ‘혐오의 일상화’를 경계하고, 최소한 혐오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우리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혐오의 드러난 각종 양태와 해악을 두루 살펴보고, 그 속에 감춰진 원인을 짚어보고 해법도 모색하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 [혐오를 혐오한다③]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증오범죄 전이 우려  
혐오 감정 응집 일부 커뮤니티 ‘화약고’ 위험  
대립과 분열 야기, 공동체에 크고 작은 손실  
여론 다양성이 아니라 열린 사회의 적 기능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비용 초래 불가피

한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되면 필연적으로 개인 간 집단 간 갈등과 분열을 동반하고 결국 유무형의 거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혐오는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을 향한 불쾌감이나 증오 등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다. 이런 감정이 반복되고 증폭되는 과정에서 정도가 심해지면 특정 집단에 속한 다수를 겨냥한 범죄로 발전되까지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3제국(나치)은 처음에 유대인, 집시는 아리아인과 다르다는 ‘차이’를 조직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면서 점차 집단적 혐오가 형성되고 공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홀로코스트(Holocaust)로 폭발했다.

나치의 집단학살은 ‘증오 범죄(hate crime)’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증오범죄나 ‘편견범죄(bias crime)’는 인종이나 관습, 국적, 사상, 종교, 성별, 성적지향 등을 근거로 형성된 적대감이나 편견 따위가 동기로 작용한 범죄 행위를 지칭한다.

미국 쿨클리프스클랜(KKK)단의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백호주의(白豪主義)를 내세운 폭력 등도 포함된다.

◇한국, 혐오 감정 표출 증가일로...증오범죄서 자유롭지 않아

국내에서 인종이나 종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증오범죄 발생 정도는 아직 적은 편이다. 하지만 공격적 현상이 점차 강도를 더하면서 관련 범죄에 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이후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퍼졌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묻지마 범죄’의 양태를 보였지만 범인이 피해당사를 갖고, 손상된 자존감에 대한 분노를 여성을 상대로 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오범죄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의 희생자를 낸 유명철 사건, 2006년 4월 서울 서남부 연쇄 살

인 사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발생한 강호순 사건 등도 증오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범행 동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증오나 사회적 편견, 차별 등을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폭행 또한 증오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

혐오 감정이 응집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증오범죄의 화약고가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젠더·지역·세대·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결부된 과격한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집약되고 증폭되는 공간이다.

‘일기베스트(일베)’에서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은 일상 대반사다. ‘위미드’에서는 남성 일반을 향한 맹렬한 증오, 천주교에 관한 적대감이 큰 불의를 일으켜 여론의 비판과 질타가 쏟아졌지만 변화는 없다. 오히려 내부적 결집만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런 커뮤니티들엔 특정 집단을 상대로 황산 테러를 하겠다거나 연산을 뿌리겠다든 글, 불을 지르겠다거나 버스 안에서 흥기를 겨냥한 사진 등이 빈번하게 게시돼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에 해당되는 범죄가 될 정도로 비방 정도가 강한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혐오는 갈등의 촉매...대립·분열 등 유무형 손실

혐오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돼 갈등의 촉매 역할을 한다. 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혐오의 공공연한 표출은 대립과 분열을 야기하고 구성원에게 상처를 주는 등 공동체에 크고 작은 손실을 입힌다.

일례로 학교에서는 고급 아파트 브랜드가 아닌 곳에 사는 급우를 ‘휴거(휴먼시아 거지)’ 또는 ‘주거(주공아파트 거지)’ 등으로 부르면서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토대로 다른 아이들을 얕잡아보거나 약자로 치부하는 행위다. 밑시를 가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증오의 불씨를 배태한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김새가 다르거나 부모 기온에 하나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으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 특히 외양이 비서구권 출신처럼 생겼을 경우 따돌림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한다. 이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자리잡기 쉽다.

또 국제화를 거치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과거보다 줄었다지만 출신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차별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다. 최근의 예멘 난민 등을 향한 반감과 낙인찍기는 위태로운 수준이다.

대학교에서는 입학 전형에 따라 구분 짓기를 하고 출신지나 출신 학교 등으로 선을 그으면서 경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별레’로 지칭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이나 세대를 둘러싼 갈등은 고질적이다. 공동체 속의 다양한 대립 요소는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을 다각도로 초래한다.

◇폭력적 언행 만연 우려...어른 다양성이 아니라 열린 사회의 적

집단과 조직에서 구분과 구별이 생기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 특정 대상을 싫어하거나 피하려는 감정 자체를 인위적으로 부정하거나 교정하려는 시도는 자칫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할 위험도 있다.

하지만 혐오 감정이 민인의 민인을 향한 형태로 끊임없이 세로 분열을 하며 집단화·노골화하고 실생활에서 타인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언행이 만연해진다면 차원이 달라진다. 여론의 다양성이 아니라 열린 사회의 적으로 기능할 때를 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는 모든 사회에 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서구 사회는 이미 혐오 경험이 있고 우리는 이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하지만 서구에서는 명시적으로 공공연하게 혐오가 발현되지 않는 반면에 한국은 외부로 표출되고 정치적 의제로 비화된다는 것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의 표출은 사회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층 세대 간 등 여러 간극이 크고 불평등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가 없다 보니 혐오감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자기합리화 수준으로 전락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뉴스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